



△赤道기니位置圖

赤道 기니共和國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卞鍾達

韓國電力技術株式會社

금번赤道기니政府의 要請으로赤道기니共和國의 農漁村 電化事業 計劃樹立에 따른 諮問을 爲하여 1989年度 우리나라 政府의 對外技術 供與事業의 하나로서 筆者가赤道기니共和國에 다녀오게 되어 그동안 보고 들은 바를 바탕으로 關心있는 會員들에게 參考가 될까하여 본 見聞記를 쓰게 되었다.

1. 비오코 섬과 리오·무니

赤道기니는 중부 아프리카 西쪽에 位置하고 있으며, 大西洋에 臨하여 있다. 가봉國과 카메룬國 사이에 위치한 本土地區인 리오·무니와 카메룬國 앞바다인 기니灣에 있는 島嶼地區인 비오코 섬과 여기로부터 670km 떨어진 西南方 大西洋上에 위치한 아노본 섬으로 構成되어 있다.

面積은 리오·무니가 26,017km², 비오코 섬이 2,017km², 그리고 아노본 섬이 17km²로서 全國土面積은 28,051km²이다. 人口分布는 각각 263,000명, 65,000명 그리고 2,000명으로서 戶

計 全國 人口는 330,000명(1986年 추정)이다. 면적은 우리나라 南韓의 28%이고, 人口는 0.8% 수준이어서 人口密度는 11.8명/km²으로서 우리나라 418.2명/km²(’86년)의 2.8%에 不過함을 알 수 있다.

비오코 섬은 1471년 포르투갈 사람들이 처음으로 上陸하였다고 한다. 後 1778년에 스페인으로 넘어가 스페인領이 되었으며, 本土地區의 리오·무니는 19세기 후반에 스페인領이 되었다고 한다.

1964년에 兩地區에 自治政府가 수립되었고, 後 UN 식민지위원회 의 권유에 따라 스페인이 獨立을 許容하기에 이르러 1968년 10월 22일 독립國이 되었다. 獨立과 함께 UN의 126번째 會員國이 되었고, 自治政府의 副수장이었던 마시아스가 초대 大統領에 취임하였다.

비오코 섬은 카메룬의 가장 가까운 해안에서 약 3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位置하고 있는데, 獨立前에는 페르난도·포섬이라고 불리었고, 마시아스 大統領 時節에는 大統領이름을 따

서 마시아스·엔게마 섬이라고도 불리었다. 비오코 섬은 火山性의 섬으로 해발 3,000m가 넘는 북쪽의 웅장한 주봉을 비롯하여 남쪽에도 2,000m가 넘는 두 개의 부봉이 자리 잡고 있으며, 南部는 깊은 斷崖의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2. 마시아스 大統領 時節

마시아스 大統領은 1979년 8월 군사 쿠데타로 축출될 때까지 11年間(1968~79)을 쇄국정책으로 일관하여 외부세계와 특히 自由陣營과의 國交를 杜絶시켰었다. 1971년 10월에 중공과, 그리고 1972년 5월에 월맹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그동안에 소련, 북한 및 쿠바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마시아스 大統領은 恐怖정치로 나라를 통치하였기 때문에 통치기간중에 수만명이 國外로 도피하였거나 살해되었다고 한다. 비오코 섬의 카카오 農場에서 일하던 나이지리아인과 그 家族들 4만여명이 전부 추방되어 버렸고, 리오·무니로부터 현지인 2만명을 移住시켜 農場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마시아스 大統領 실각후에 이들 현지민들이 本土地區로 되돌아가 버려 카카오 農場은 극심한 人力難으로 코코아 生産이 격감하였다고 한다.

마시아스 大統領 時節에 나라의 財政이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惡政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代價로서 죽음이나 迫害가 더해졌다. 이 期間에는 국가에 산제도가 없어 公務員도 일정액의 月給을 주지 않고 가끔 現物配給으로 이를 代替하였다고 한다. 犯法者에 대하여도 엄벌을 가하여 심지어는 범법자의 부모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現在도 범죄가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없다.

학정에 못견딘 많은 사람들이 國外로 나갔으

며, 쿠데타 후 2만 5천여명이 되돌아 왔으나 아직 10만여명이 外國에서 國內情勢 추이를 관망하고 귀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3. 모로코 警護隊

1979年 10月 3日 마시아스 大統領의 가장 가까운 補佐官이며, 조카인 오비앙 中領 主導下에 쿠데타가 일어나 마시아스 大統領은 權座에서 逐出되어 處刑되었다. 새로 就任한 오비앙 大統領은 나라를 再建하기 위하여 開放政策을 표방하고 있으며, 西方 여러나라와 國交를 맺고 있다. 그러나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하여 500명으로 構成된 모로코 兵士들로 하여금 大統領을 警護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모로코 警護隊에 의해서 1983년만 해도 세번이나 쿠데타 陰謀를 적발하였고 1986년 7월에는 쿠데타 음모로 약 40명을 검거하였다고 하니 政局이 항상 不安狀態의 連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들은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은 모로코 軍人들에 대해서도 쿠데타 陰謀에 가담할 機會를 주지 않기 위해서 6個月마다 모로코로부터 새로 兵力을 補充받아 交替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外人部隊은 아프리카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로서 카메룬에도 자체 大統領 護衛대를 이스라엘 傭兵部隊이 監視하고 있다고도 한다.

4. 首都 말라보

赤道 기니 共和國의 首都는 비오코 섬에 있는 人口 5만명인 말라보市이다. 말라보에는 滑走路 길이가 3,000미터인 國際空港이 있다. 이 空港은 市内에서 約 7.5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스페인의 이베리아 航路이 마드리드로부터 나이지리아의 라고스를 경유해서 週 1회 就航하고 있

으며, 그 밖에 소련의 民航, 모로코의 國營航空, 나이지리아 航空 및 카메룬 航空이 就航하고 있다. 赤道 기니航空 EGA도 1986년에 설립되어 말라보-바타間을 週 5回, 그리고 隣近國인 카메룬과 가봉에 각각 週 2回씩 운항하고 있다.

本來 赤道 기니共和國의 首都는 本土地區의 바타에 있었으나 쿠데타 防止와 大統領 警護를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島嶼地區인 바키오 섬으로 옮겼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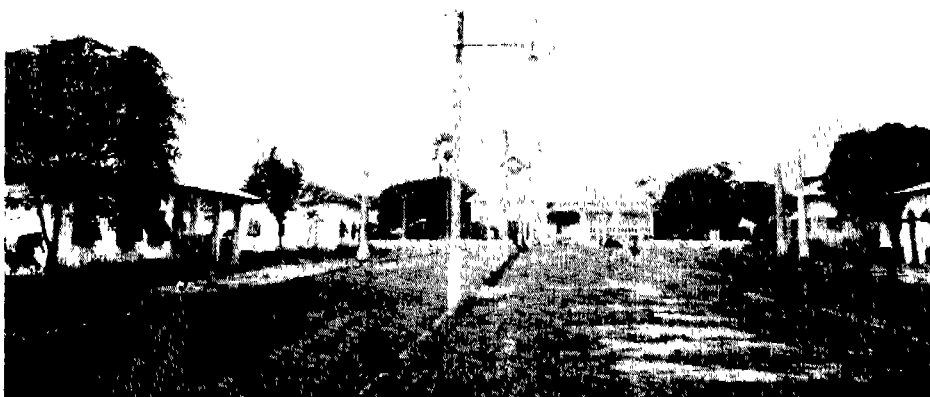
首都 말라보에는 赤道 기니共和國의 17個 中央部處가 있고 美國, 蘇聯 및 中國을 비롯한 外國公館이 있으며, 特히 스페인과 프랑스는 대규모의 文化館을 運營하면서 말라보 市民에 대한 弘報에 주력하고 있다. 北韓公館도 그 規模가 相當히 커서 마시야스 大統領 時節에는 兩國關係가 緊密하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말라보에는 몇 個의 호텔이 있으나 모두 構內 食堂은 없다. 第一 高級인 곳이 임팔라·호텔인데, 이 호텔에는 自家發電施設이 있어 停電으로

因한 影響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다. 말라보 市는 電氣事情이 안 좋아서 隨時로 停電이 되고 上水道事情도 극히 나빠 特히 高地帶는 全然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을 運搬하는 것을 언제나 볼 수 있다. 밤에 街路燈 밑에서 工夫하는 學生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색다른 風景이다. 다른 곳은 停電이 되어도 가로등은 停電이 되지 않도록 供給于先順位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낮에는 길거리에 별로 사람이 많지 않으나 해가 지고 氣溫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모두 집에서 나오기 때문에 길거리에 사람이 넘치고 活氣를 띠게 된다. 새벽 2時경까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더위를 식히면서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임팔라·호텔은 구내식당은 없으나 客室마다 浴室 외에 냉장고와 취사시설이 되어 있어 편리하다. 그리고 性能은 시원치 않지만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天井 선풍기와 桌上 선풍기가 있어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지 않을 수 있다. 그



▲ 아니소크마을 中心街

러나 우레카·호텔은 구내식당이 없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停電이 계속되기 때문에 선풍기도 있으나마나 하고 물도 나오지 않아 지내기가 매우 고통스럽다.

이 밖에도 경치 좋은 곳에 바히아·호텔이 있으나 퇴락하여 屋外 풀장에는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고 투숙객도 없는 듯 하였다.

말라보 市内에는 食堂이 몇 곳 있다. 베이루트 식당, 클럽·노티코, 카치롤로·카페테리아 및 아바야크 등이 있으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없는 듯하다. 베이루트 食堂은 임팔라·호텔 근처에 있으나 클럽·노티코는 부둣가에 있고, 아바야크는 말라보에서 空港 가는 도중에 있어 自動車로 가야 한다. 아바야크에는 당구장과 휴게실이 있어 TV 관람도 할 수 있다.

電話는 호텔의 경우 프론트에 1대가 있을 뿐이고 國際電話를 걸려면 電信電話局에 가서 걸어야 한다. 텔렉스도 역시 전신국에 가서 발송하여야 하고, 전신국에 게시한 텔렉스 到着리스트를 확인해서 自己한테 온 것이 있으면 署名해 주고 받아가도록 되어 있다.

5. 광族과 부비族

赤道 기니共和國은 본토지구와 도서지구로 大別할 수 있는데, 部族도 本土지구의 광族과 비오코 섬의 土着民인 부비族으로 區分할 수 있다. 全國 人口의 85%가 本土地區 출신의 광族이다.

쿠데타로 逐出당한 마시아스 前大統領도 그렇지만 오비앙 現大統領도 本土地區 東端의 몽고도 地方出身인 광族이다. 執權勢力의 90% 이상이 광族으로 構成되어 있고, 부비族 出身은 소외계층으로서 自身들의 본고장인 비오코 섬에서도 輿地로 밀려 나고 있는 實情이다.

광族 및 부비族 모두 固有의 言語가 있어 地域別로 通用되고 있으며 相對方 言語를 다른 部族

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文字는 없어 스페인語 알파벳으로 記錄한다고 한다. 그래서 公用語는 스페인語로 되어 있다. 부비族의 一部 人士들은 비오코 섬이 따로 獨立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赤道 기니사람들은 性格이 명랑하고 어떻게 보면 社交的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男女區別 없이 악수를 交換한다.

6. 스페인과 프랑스

赤道 기니는 1968年 獨立 이전 약 200년간을 스페인 統治下에 있었으며, 獨立 후에도 스페인 영향권 하에 있었다. 그러나 스페인 政府의 원조자금 사용에 대한 過度한 干涉과 이에 對한 赤道 기니政府의 반발로 적도 기니 大統領이 프랑스를 訪問하게 되었고, 그後 프랑스의 影響이 增加하고 있는 實情이다.

1985년에 赤道 기니는 그 通貨制度를 正式으로 프랑通貨圈에 加入시키게 되었고, 새로운 화폐 단위가 CFA 프랑으로 되어 프랑스 프랑과는 固定환율(CFA프랑 50=프랑·프랑 1)로 아무 制約없이 교환이 가능하다.

프랑 通貨圈의 아프리카 會員國으로서 카메룬, 中央 아프리카, 차드, 콩고 및 가봉 등이 있는 바 赤道 기니도 여기에 同參함으로써 모두 同一한 CFA 프랑이 通貨단위가 되어 會員國 相互間은 制限없이 流通되고 있다.

이와 같은 通貨制度는 會員國 상호간의 貿易 促進도 그 目的의 하나이겠으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랑스와의 緊密한 무역관계 유지 강화에 그 目的이 있다고 하겠다. 프랑圈 加入 이전에는 화폐 단위가 에크프웰레로서 스페인 通貨 페세타와 固定換率을 유지하고 있었다.

赤道 기니共和國은 프랑圈에 加入함으로써 프랑스와의 유대가 더욱 強化되었으며, 상대적으

로 스페인의 영향권에서 멀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赤道 기니의 公用語는 스페인語이지만 上流社會는 프랑스語를 使用하고, 現職 大統領도 프랑스語를 1週日에 10時間씩 배우고 있다는 소문이 있을 程度이다. 말라보 市内에는 프랑스 文化館과 스페인 文化館이 있으며, 그 活動이 매우 활발하여 경쟁적으로 行事를 開催하고 있어 영향권 다툼 내지 패권 다툼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7. 나이지리아의 威脅

赤道 기니는 나이지리아로부터의 侵攻 위협을 느끼고 있어 프랑스와의 軍事유대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가장 強力한 이웃인 나이지리아는 南아프리카인이 바키오 섬에 와 있다는 事實을 구실로 赤道 기니에 對하여 警告를 發한 적이 있고, 過去 바키오 섬의 카카오 農場에 從事하던 나이지리아인에 대한 박해도 그 背景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南아프리카 사람들이 바키오 섬을 據點으로 나이지리아에 대하여 攻擊하여 올지도 모르겠다는 恐怖心을 나이지리아는 갖고 있는 듯하다.

8. 말라리아 豫防作戰

아프리카를 旅行하려면 黃熱病, 콜레라 등의 豫防接種은 상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밖에 現在 赤道 기니에서 만연되고 있다는 장티푸스에 대한 豫防注射은 거주하고 있는 해당 區保健所에서 맞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出國전에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現地 도착 후에 豫防藥을 服用하기 시작하였고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하

여 中國産 모기향을 피우는 등의 努力을 계속하였다. 그밖에도 말라리아에 感染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治療藥도 준비하여야 한다.

말라리아 豫防藥은 하루에 한 알 服用하는 것과 1주일에 한 알 服用하는 것 등 여러가지 種類가 있다. 이와 같은 말라리아 豫防藥을 오래 服用하면 視力이 나빠진다고 한다. 또 말라리아는 感染後에 潛伏期間이 있기 때문에 感染地域을 벗어난 後에도 4週間내지 6週間을 계속해서 服用하여야 한다고 하니 苦役이 아닐 수가 없다.

9. 말라보의 僑民

赤道 기니共和國의 首都인 말라보에는 놀랍게도 우리나라 僑民이 居住하고 있다. 할리우드 寫眞館에서 일하고 있는 P씨와 L씨, 그리고 遠洋漁業관련사업 開拓을 爲하여 홀로 와 있는 S씨 등 3명이 우리나라 公館도 없는 머나 먼 섬에서 活動하고 있다는 事實을 생각하면 感慨無量함을 禁할 수가 없다. 孤獨과 싸우면서 不平 없이, 勿論 不平을 할 相對가 없기도 하지만 逆境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면 진정한 愛國者가 이런분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各界 各層의 다양한 慾求가 끝도 없이 噴出되고 있는 國內 事情을 생각할 때 묵묵히 自己所任을 다하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國力伸長의 原動力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資源도 없는 좁은 國土와 많은 人口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海外進出만이 이에 대한 解決策이 될 것이다. 海外僑民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하는 事業開拓과 民間外交야말로 우리나라의 國際的인 地位를 向上시키는 가장 큰 要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만 見聞記를 줄이기로 하고, 誌面이 허락한다면 다음 機會에 다시 만나 電氣關係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